

中世의 절벽도시 「에즈」

김 윤 기



▲ 에즈의 중심부·바위틈새와 절벽에 지은 도시라서 길은 좁고, 대부분이 계단식이며 돌을 깔았다. 주변의 집들은 네모뻐듯한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별의 별 희한한 도시가 다 있다. 베니스도 희한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물속에 집을 짓고, 배를 타고 다니며 사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다.

홍콩 아바딘도 희한한 부락이다. 문패도 번지도 없이, 떠다니는 일엽편주에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도 별나다.

터키의 카파도키아는 바위꼭대기 굴을 파고 집을 지었다. 옛날에는 이곳이 寺院이

고, 주택이었다.

프로방스지방의 에즈(Eze)도 이상한 도시의 하나다.

에즈는 니스와 모나코 사이에 있다. 니스에서 모나코를 가려면 3개의 길이 있다. 이 길들은 모두 바닷가 절벽을 지나고 있다. 이 길들은 꼬르니슈(Corniche)라고 부른다. 절벽을 까고 길을 낸 드라이브 웨이(崖壁道路)라는 의미다. 맨 아랫층 길은 꼬르니

슈·양페리울(Corniche Inferieure), 중간층 도로는 모와이엔느 꼬르니슈(Moyenne Corniches), 그리고 맨 꼭대기층 도로가 그랑 꼬르니슈(Grande Corniche)다.

나폴레옹이 만들었다는 그랑꼬르니슈는 450m나 되는 절벽위의 산등성이를 타고 달리고, 꼬르니슈 양페리울은 찰랑거리는 파도를 바로 발밑에 보면서 달린다. 에즈는 중간층의 모와이엔느 꼬르니슈를 달리다보면 오른쪽 바닷쪽으로 있다.

에즈 입구에는 나무판자에 Eze Village라고 쓴 간판이 서 있다. 그리고 약 100평쯤 되어 보이는 작은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 옆으로 아스팔트를 깐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에즈에 도달한다.

에즈 입구에는 작은 호텔도 있고 상점도 있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면 저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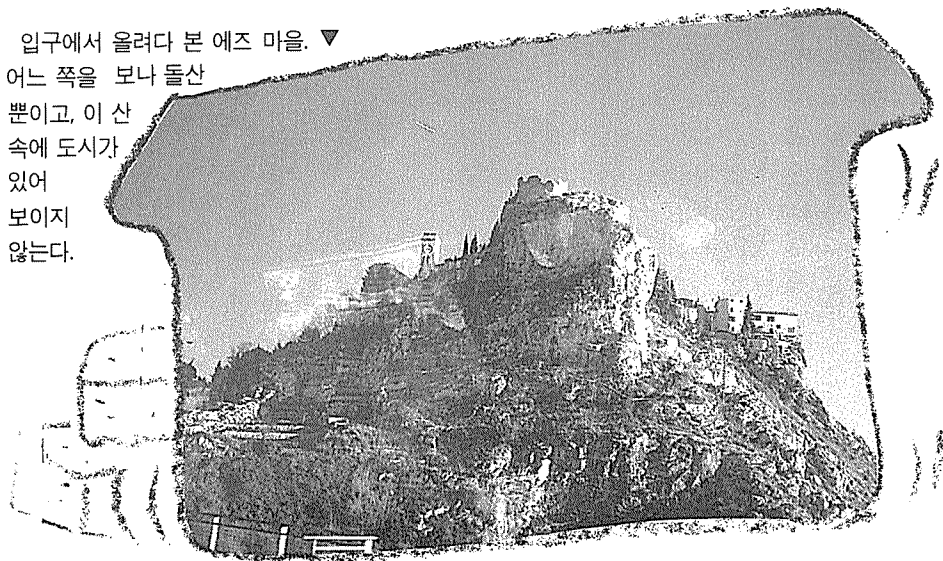
에즈에 도달할것 같은데 상가가 끝나면서 넓은 돌마당이 나오고, 갑자기 길은 사라진다. 위를 쳐다보니 절벽뿐 도대체 도시란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옛날 에즈를 침략했던 사라선군대들도 여기까지 왔다가 길을 못찾고 되돌아 갔었을 것 같다.

길은 교회당 왼쪽 절벽 끝으로 나 있었다. 곁에서 보기엔 길이 있을것 같지 않은 벼랑이다. 그러나 바짝 다가가 살펴보니 사람이 하나 겨우 지나갈만한 통로가 있었다. 이 길을 따라 교회 뒤로 돌아가니 여기서부터 꿈속의 도시같은 풍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집들은 모두 돌로 지었다. 그런데 이집이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다. 집들이 모두 옆으로 기울거나 비뚤어졌다. 아마 집을 지을때 목수가 자를 사용하지 않은것 같다. 창들도 비뚤어지고, 출입문도 비뚤어졌다. 너무 오

입구에서 올라다 본 에즈 마을. ▼

어느 쪽을 보나 돌산 뿐이고, 이 산 속에 도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래된 집이라 낡아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석재로 지은 완벽한 건축물이다. 낡고 헐어서 기울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울어진 집들이다.

집이란 원래 땅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담을 쌓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집들이 모인 곳이 도시다.

그런데 에즈의 집들은 땅위에 지은 집이 아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 빈틈이나 기슭에 돌을 처듬처듬 붙여서 만든 집들이다. 때문에 바위의 형태에 따라 집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그 생김새가 더욱 가관이다. 어떤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절벽이 나타난다. 절벽 옆으로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오르면 거실이 있다. 침실은 이 거실에서 또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한다.



▲ 국도 제1호가 남의 집 안방 밑으로 지나가고 있다. 계단이나 창문들이 모두 비틀어져 있다.

에즈의 주택은 모두 이런 식이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깎아지른 낭떠러지 밑에 지중해 푸른 바다가 보인다. 수백길 낭떠러지가 현기증이 날 정도다.

에즈의 도로는 곧바로 뚫린 길이 하나도 없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이나, 도로폭이 넓은 곳은 마차가 한대 지나갈 만큼 되는 곳도 있으나, 좁은 곳은 사람이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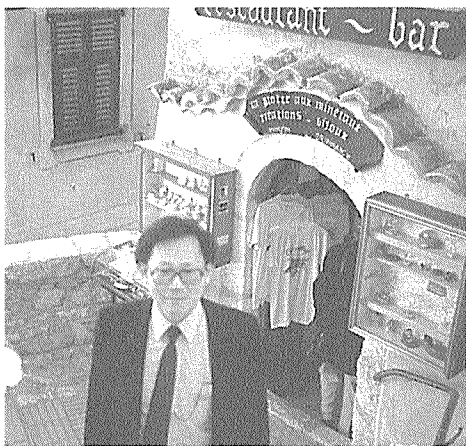
도로는 모두 산정을 향하여 올라가는 비탈길이었으나, 절반은 계단식도로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이 남의 집 안방 밑으로도 지나가고, 마당 한가운데로도 지나가고, 지붕위로도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 길이 이 나라의 국도 제1호다.

도로의 형태로 보아 차나 말은 다닐 수가 없었을 것 같다. 전설에 의하면 조랑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가 관광객을 태우려고 기다리는 조랑말이 눈에 띄이기도 한다.

국도 제1호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성문이 있고, 이 성문은 입장료를 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성문 안은 열대정원이다. 선인장과 남방식물이 성안에 가득 하다.

원래는 이 성안에 성관이 있었고, 성주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성관은 루이16세가 헐어버렸다.

지금은 성벽만 남아 있었고, 성관의 일부와 교회건물이 남아 있었다. 신기하게도 창고처럼 생긴 성관건물 안에 코피술이 있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 오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의 휴식처인 모양이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 넓은 지중해가 시야에 들어온다.



▲ 시중심지 변화가의 상점 앞에서 있는 필자

들이 있다. 카뉴슈르메르느는 화가 르노와르가 살던 집이 있고, 사갈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오리브박물관 등이 있다.

쌍포르에는 유명한 마그제단 미술관이 있다. 이 미술관에는 밀로, 사갈, 마티스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프랑스에서 손꼽는 유명 미술관의 하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도시 한복판에 광장이 있고, 분수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현지인들은 이런 도시를 가리켜 「독수리 동지」라고 부른다.

여러개의 절벽도시중, 에즈는 지중해변에 있어 극적인 분위기를 가졌다. 쌍포르나 로큐브룬느는 내륙쪽에 있어, 바로 발밑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에즈는 도시전체에 있는 건축물이 100여 채가 안된다. 도시라기 보다는 마을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이 집들이 호텔이 되기도 하고, 레스토랑도 되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되기도 했다. 에즈 마을에는 별2개(☆☆)수준의 호텔이 2개나 있고, 샤토호텔안에 있는 레스토랑은 미쉐린에서 별1개를 부여할만큼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약 300프랑을 가져야 출입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카페는 많았다. 그러나 모두 작았다. 보통 테이블 2, 3개를 놓고 장사하고 있다. 외적을 막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독수리 동지같은 절벽도시를 짓고 살면서 생존을 지켜온 에즈의 선조들의 슬기가 생각할수록 진기했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

에즈는 13, 14세기때 지어진 도시다. 나무도 풀도 없는 바위산에 도시를 지었다. 절벽을 까고, 절벽 틈새에 집을 짓고 길을 낸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넓고 기름진 땅을 버리고, 이런 돌산 절벽에 도시를 짓고 살았을까. 그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외적도 이 절벽을 타고 쳐들어 올수는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지방에는 에즈와 같은 절벽도시가 여러개 있다. 모나코왕국을 건립한 그리말디家도 원래는 로큐브룬느(Roquebrune)란 절벽도시의 성주였다. 로큐브룬느는 지금의 모나코왕국 뒷쪽에 있는 돌산 꼭대기에 있었다.

니스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에즈와는 반대쪽) 카뉴슈르메르, 쌍포르란 절벽도시